

자가배합사료 생산 실태(사례)와 활성화 저해요인

1. 머리말

전에 IMF사태가 발생했을 때 사료공급의 불충분 및 가격의 상승으로 각종부산물을 이용하여 자가배합을 실시하는 농장이 늘어났다.

그리고 농림부에서도 자가배합의 타당성을 인정하고 지원방안을 모색하여 왔다.

그러나 IMF 이후 사료가격이 안정되면서 다시 배합사료를 사용하는 농가가 대부분이다.

그렇다면 자가배합은 분명히 원가가 절감되는데 왜 자가배합이 활성화되지 못하는 가라는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 양돈용 자가배합사료 생산실태(사례)와 활성화 저해요인에 대하여 간략히 검토해 보기로 하겠다.

2. 자가배합의 타당성과 자가배합사례

1) 자가배합의 타당성

농가에서 자가배합을 하고자 할 때는 사료비를 사료회사에서 구입하는 것보다 줄일 수 있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원료구입, 사료제조시설, 기술 등 여러가지 여건이 갖추어져야 한다. 필자의 경험으로는 10~20%정도 가격을 절감할수 있는데, 이것은 원료사료의 구입단가, 사료의 품질수준 등에 따라서 그 이상, 그 이하의 차이가 날 수도 있다.

또한, 농가에서 사료를 제조할 경우 원하는 품질의 사료를 생산할수 있는 장점도 있다. 시판사료는 가격과 품질이 너무나 다양하다. 따라서 대상돈군의 유전능력에 맞



채 병 조 교수
강원대학교 동물자원학부

는 사료를 공급할수 있다는 것이 자가사료에서 오히려 가격면보다 강조되어야 할 사항이다.

2) 국내의 자가배합의 실태(사례)와 문제점

자가배합의 유형은 여러 가지가 있을수 있다. 원래 자가배합사료의 생산(farm mixing)이란 농가에서 주원료(주로 곡류)를 경작할 때 다 른 보충사료를 구입하여 완전배합사료를 생산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이와같이 사료용 곡물을 경작할 땅이 사실상 없기 때문에 외부에서 구입하여야 한다.



▶ 펠릿화시킨 자가배합사료를 양돈농가가 들여보이고 있다.

우리 나라에서 자가사료를 얼마나 생산하고 있는 지는 조사된 바가 없다. 이는 기존 사료회사는 월별 생산량을 집계하여 농림부에 보고하지만 자가배합사료는 일체 보고되지 않기 때문에 집계하기가 곤란하다.

따라서 본 고에서는 자가사료를 생산하고 있는 사례를 유형별로 예를 들어 보기로 하겠다.

(1) 경남 합천 소재 Y양돈단지에서는 분쇄한 옥수수(일부 타원료 혼합)를 기존 사료공장에서 구입하고 나머지 원료는 직접 구입하여 분쇄한 옥수수를 구입하는 사료공장에서 기술지도를 받으며 월 1천톤 정도의 자가사료를 생산하고 있다. 가격과 품질에서

만족하고 있으나 옥수수를 직접 구입하지 못하기 때문에 옥수수 구입단가가 다소 비싼 문제점이 있다.

(2) 경남 양산소재 K농장은 건조한 잔여 음식물사료와 기타 부산물을 일부 구입하고 나머지 원료는 기존사료회사에서 기초사료형태로 구입하여 배합하고 있다. 사료가격

은 다소 저렴하나 잔여음식물 사료나 자체구입하는 원료사료의 품질이 일정하지 못한 문제점이 있다.

(3) 강원 원주소재 J사에서 잔여음식물을 습식발효하고 여기에 부족한 성분을 기초사료(사료공장에서 구입)를 혼합하여 급여하고 있는 데 역시 잔여음식물의 성분함량이 균일하지 못한 문제점이 있다.

위와 같이 자가배합 사례를 열거해 보았는데 실제 우리나라에서 가능한 자가배합의 형태는 잔여음식물이나 유기성 부산물을 이용하는 경우와 경남합천 소재 Y양돈단지와 같이 분쇄한 곡물을 사료공장에서 구입하고 나머지는 자체구입하여 배합하는 두가지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

3. 자가배합 활성화 저해요인

이미 앞에서 자가배합 사례별 문제점을 약간 언급했다. 국내의 자가배합 활성화 저해요인을 좀 더 자세히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 급변하는 양돈사료 시장과 양돈농가의 선택

(1) 농가에서 사용하는 원료중 주곡물(옥수수 등)의 직접구입이 곤란하다.

외국에서는 자가배합시 옥수수 농사를 지어 직접 사료로 활용하지만 우리나라는 수입한 것을 이용해야 하는데 소규모로 자가사료를 생산하는 농장에서는 수입에 직접 동참할수 없고 사료회사에서 분쇄한 곡물(그것도 일부 다른 원료가 혼합된 것)을 구입해야 한다. 이렇게 되면 구입시 가격이 비싸므로 사료원가에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자가배합이 활성화 되려면 정부에서 소량의 곡물이 필요한 농장에도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보완이 있어야 한다.

(2) 사료생산기술이 부족하다.
농가에서 사료배합비율표

〈표 1〉 월별 잔여 음식물의 화학적 조성(건물기준, %)

구분	수분	조단백질	조지방	조회분	칼슘	인	에너지(kcal/kg)	염분
99.7	85.09	24.22	13.77	15.48	1.78	1.24	4509.68	3.15
8	85.62	28.88	15.16	14.04	1.23	0.88	5124.61	2.78
9	81.30	22.84	12.60	17.85	3.37	0.98	5237.40	2.83
10	79.36	20.63	10.97	18.70	3.94	1.20	4940.24	2.57
11	78.82	22.60	10.34	15.63	4.39	1.10	5128.76	2.74
12	75.48	23.56	10.39	14.96	4.01	0.94	4093.94	2.61
00.1	78.57	18.66	13.30	14.67	2.73	1.05	5140.13	2.01
2	81.93	18.23	13.75	12.59	1.96	1.02	5336.10	2.54
3	80.75	21.11	14.93	15.22	2.26	0.78	4942.82	2.68
4	80.45	22.65	17.51	16.16	2.91	0.84	5010.02	2.45
5	81.81	25.46	21.28	18.00	3.08	1.26	5286.49	2.36
6	85.16	26.82	20.05	19.51	3.20	1.15	5358.69	2.63
평균	81.19	22.97	14.50	16.07	2.91	1.04	5009.07	2.61
편차	3.03	3.13	3.56	2.05	0.97	0.16	369.17	0.2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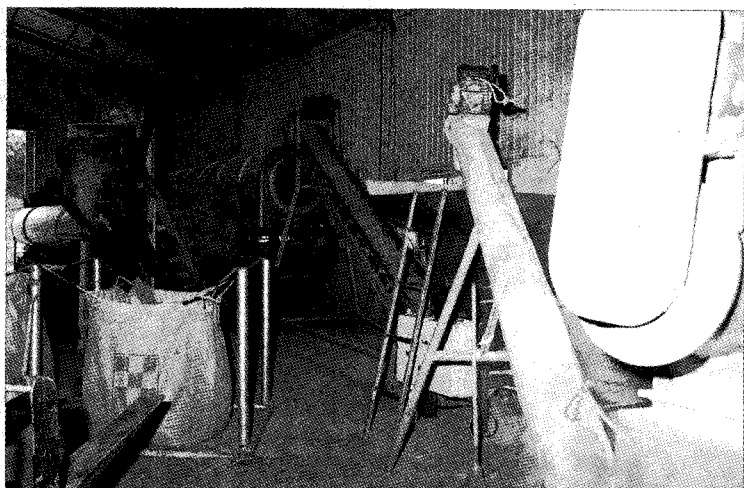
를 작성하기 곤란하기 때문에 대부분이 보충사료를 구입하는 사료공장에서 배합비율표를 작성하여 준다. 이 경우 농가에서 활용하는 부산물의 영양소 함량을 충분히 평가하지 못하기 때문에 최적의 배합비율표를 작성할수 없어 돼지의 성장률이 극대화되지 못

하는 경우가 많다.

(3) 부산물의 성분변이폭이 커서 품질이 균일한 사료의 생산이 곤란하다.

필자가 원주지역에서 발생하는 잔여음식물의 성분함량을 조사해 본 결과(표 1) 성분함량의 변이가 크다는 것을 알았다. 이 경우 자가배합사료중 잔여음식물이 차지하는 비중이 클수록 품질이 균일한 사료를 생산하기 어렵다. 그렇다고 사전에 분석하여 배합비율표를 작성한다는 것은 농가수준에서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

◀자가배합이 활성화 되려면 정부에서 소량의 곡물이 필요한 농장에도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보완이 있어야 한다.



▶자가배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농가에서 모든 원료를 손쉽게 구입할수 없다는 점이다. 사진은 자가배합을 위해 원료를 쌓아둔 것.



(4) 원료의 구매량을 결정하기 쉽지 않다.

만약 소규모의 농장에서 자가배합을 실시할 경우 국내 부원료를 구입시 최소운반단위가 차량단위는 되어야 운송비를 절감할수 있는데, 만약 소량을 주문한다면 운송비가 커서 원재료비가 크게 상승하게 된다. 또한 차량단위로 많이 구입하면 재고가 많아 품질에 문제가 생길수 있다. 따라서 자가배합을 하더라도 적절한 사료물량이 되어야 재고관리나 품질관리에 문제가 없다.

(5) 농가의 과도한 빚도 자가배합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자가배합을 할려면 사료값을 적어도 월말결제할 수 있는 농가라야 한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양돈농가 상당부분이 3-6개월의 장기 외상사료를 이용하고 있다. 경남합천 Y양돈단지의 경우 월말결제가 불가능한 농가는 자가배합사료 이용회원이 될 수 없다.

4. 맺는 말

많은 사람들이 자가배합을 쉽게 생각하고 있으나 필자는 자가배합이 결코 쉬운일이 아님을 강조하고 싶다. 각종 부산물이나 잔여음식물을 이용하여 자가배합을 하고 있는 여러농장을 둘러 보았지만 많은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고, 더욱이 시판 배합사료이용농가에 비해 많은 고생을 하고 있다.

이렇게 힘이 든다는 것은 결국 지속적으로 자가배합을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

위에서 자가배합상 여러 가지 저해요인을 지적했는데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농가에서 모든 원료를 손쉽게 구입할수 없다는 점이다. 주원료인 사료용 곡물을 농가수준에서 쉽게 구입할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 되어야 한다.

이것은 우리나라의 여건으로 보아 옥수수 같은 곡물을 손쉽게 구입하지 않고서는 자가사료를 생산할수 없고 생산한다고 하더라도 사료공장에서 분쇄한 것을 구입하면 사료공장에서 거기에 마진을 붙인 가격으로 공급하기 때문에 사료비 절감효과가 크지 못하다.

사료회사도 농가에서 자가배합사료를 생산하는데 농축사료를 공급하거나 기술을 제공함으로써 일익을 담당할 부분이 있다.

무조건 배타적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이젠 이러한 부분도 상호협조할 시대가 왔다고 본다. 어려운 환경하에서 양돈을 하는 우리농가가 살아야 사료회사도 존재할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해야 한다. **양돈**